
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	보 도 참 고 자 료	
배 포 일	2020. 4. 16. / (총 2매)	담당부서	중앙방역대책본부 검사분석팀
과 장	한 명 국	전 화	043-719-8190
담 당 자	김 정 민		043-719-8201

혈액·배설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

- 질병관리본부 배양실험 통한 감염력 평가결과 발표 -

-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코로나19 환자의 혈액 및 배설물(노, 분변) 배양검사를 통해 감염력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.
 - 그간 환자 혈액과 배설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반응이 보고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, 그 결과가 감염력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실험·평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.
- 질병관리본부 분석결과, 코로나19 환자 74명에서 얻은 혈청, 노, 분변 총 699건 중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된 24건을 배양검사 하였으나 분리된 바이러스는 없었다.
 - 이는 호흡기 이외 다른 경로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.
 -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, “배양이 가능하지 않을 만큼 미량의 바이러스만이 존재하거나, 이미 사멸하여 감염력을 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”고 설명하였다.

- 질병관리본부의 이번 평가 결과는 논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,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연사 연구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.
-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“치료 완료 후 재양성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염력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”며, “최대한 많은 사례 분석을 통해 과학적 관리 근거를 확인하겠다”고 밝혔다.